27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익산에 들어선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원센터 관계자로부터 장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새만금 농업지구 추진 탄력 기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전라북도 방문 진행상황 청취 향후방안 논의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농식품부장관")은 27일 전북 농업의 현안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새만금지구 농업특화단지의 진행상황을 청취하고 향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북을 방문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를 방문한 김영록 농식품장관은 클러스터의 조성·투자유치 현황을 파악하고 식품기업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새만금 농업특화단지에서는 영농조합법인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사업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농업특화단지 및 조사료 재배단지를 시찰함으로써 속도감 있는 단지조성 필요성에 공감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북이 대한민국 5개 농생명 클러스터가 집적되어 R&D, 농자재, 생산, 가공, 제조 등 첨단 농생명 산업의 허브로서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음을 농식품부 장관에게 설명하고 농생명 R&D 특구지정, 농진청 등 5개 국가기관, 국가·공공·대학 등 41개 연구시설과 1,500여명에 이르는 박사급 연구인력이 있는 전북에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를 조성해 문재인 대통령 지역공약을 실현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한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는 5대 농생명 클러스터 확대, 빅데이터·드론 등 4차산업 혁명의 첨단기술 확보, 수출지향적 스마트 산업 및 고부가가치 농생명 산업을 집중 육성을 통해 아시아 농생명 산업의 허브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삼락농정의 가치인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 실현하고 지역농가가 높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진성기자

상반기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28% 증가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이 지난해 27% 늘어난 것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28% 늘어났다.

군산항 컨테이너는 2017년도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3만1,298TEU를 처리했으며, 회사별로는 군산컨테이너터미널(주) (이하 "GCT")가 73% 증가한 1만5,067TEU를 처리했으며, 석도국제훼리(주)가 3% 증가한 1만6,231 TEU를 처리했다.

특히 올 상반기에 개설된 신규항로 [군산~청도(팬오션), 군산~일조(텐진유한공사)]의 영향으로 GCT의 처리실적이 크게 증가했다.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 증가는 군산항 시설·항로를 화주들에게 홍보하는 포트세일(Port Sales)과 지자체 최초(2006년)로 시행한 군산항 컨테이너 인센티브 지원의 지속적인 추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인센티브 지원은 선사, 화주 등 민간에게 군산항 이용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목적으로서 전북도와 군산시가 공동으로 재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주요 지원항목은 선사에 신규·순증화물, 볼륨인센티브, 화주 및 포워더에 적(積)컨테이너, 환적화물 인센티브이다.

군산항 인센티브 지원 제도가 선사의 기항 결정과 화주의 수출입화물 처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군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는 항로 다양화로 이어져 도내 산업단지의 민간투자 촉진, 도내 기업의 물류비 절감, 항만종사자 수입 증가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인 군산항의 활성화를 위해 군산항 포트세일(Port Sales), 컨테이너 인센티브 지원 등을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진성기자

전북도, 호우피해지역 수해복구 총력지원

민·관·군 1600여명 도내, 충북 청주 일손지원 참여

전북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익산시 등 도내 지역과 충북 청주의 수해복구 현장에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군인 등이 대대적인 지원활동을 펼쳤다.

지난 15일 육군 제35보병 사단의 수해지역 응급복구를 시작으로, 전라북도(200명), 익산시(440명), 진안군(97명)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민(561명)·군(253명)·경(75명) 등 1,600여명이 호우피해 일손지원에 대거 참여했다

특히, 지난 21일, 농경지 침수가 심했던 익산시 명성면 지역에 행정부지사 등 전북도청 및 익산시 직원 200여명이 현장에 투입돼 농작물 및 시설하우스 부속물 철거 등 응급복구에 구슬땀을 흘렸다.

전북도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이동식 밥차 지원을 위해 40여명이 수해복구 지역 봉사 활동을 벌였다

현장 일손지원에 나선 전북도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농작물 피해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도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폭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청주 지역의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서 7월 18일부터 27일까지 전북도 자원봉사센터 166명, 자율방재단 55명, 적십자사 80명 등 500여명이 자원봉사 활동에 나섰다.

피해주민과 현지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이동식 밥차 2대, 세탁차 3대 등과 침수가옥 가재도구 정리, 토사 제거를 위해 살수기 4대, 고압세척기 3대 등 수해복구 장비를 동원해 피해복구를 도왔다

수해복구에 참여한 한 봉사자는 "집중호우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하다는 소식을 접하며 마음이 아팠다"며, "84세 할머니가 주택이 침수된 채 망연자실에 있는 상태에서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흙탕물이 고인 방과 여기저기 널려 있는 집기, 가구 등은 모두 밖으로 꺼내 말리고, 세탁하고, 전기제품은 말린 후 점검하고 나니 정말 무더운 날씨에 가슴이 턱턱 막혔지만, 그래도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할머니 말씀에 어딘지 모르게 죄송하기 까지 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전북도는 여름철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6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행정부지사를 추진단장으로 도 및 시군 재난안전담당부서와 함께 "여름철 도민안전 100일 특별대책"을 추진해 더욱 더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현웅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올 여름 100일간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우를 비롯한 각종 자연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기자

전북도, 2017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공고

우수한 기술력 보유한 잠재성 높은 중소기업 발굴·육성

전북도는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중 성장가능성이 높고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를 발굴 선정해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2017 유망중소기업'을 신규 선정한다고 밝혔다.

선정대상 기업은 도내에서 사업장을 2년 이상 경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에서 종업원 수 5인 이상이고, 전년도 결산 매출액 3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재무건전성, 향후 성장전략과 장래성,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회 기여 및 기술·품질 등의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유망중소기업 선정 업체에는 ▲경영안정자금 업체당 5억원까지 지원(일반기업 3억원) ▲경영안정자금대출시 이차보전 3.0% 지원(일반기업 2.0%) ▲전라북도 선도기업, 우수중소기업 인상 선정 시 가점 부여 ▲해외시장 개척단, 국제박람회 참가, 해외규격인증획득 우선지원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및 인증현판 수여(인증기간 5년)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전북도 유망중소기업 선정사업은 1999년을 시작하여 올해 19회 째로 그동안 401개 기업을 선정 지원해왔다.

2013년에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바로렉시너지는 연 40억원의 매출액과 꾸준한 청년층 고용으로 전라북도 선도기업과 고용노동부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성장했다.

2012년에 선정된 해전산업은 매년 꾸준한 고용창출로 현재 30명정도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매출신장을 거듭하며 매출액 100억원 이상을 달성하여 최근에는 중기청에서 선정하는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인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8월 16일부터 8월 22일까지 시군에 제출하여 관할 시장 군수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고, 추천된 업체는 도에서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전북도 중소기업 지원기관 협의회'의 심의에서 유망중소기업으로 최종 선정한다.

신청서식 등은 도청 홈페이지 (도 홈페이지 → 공고/고시 → 2017 전라북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공고)에서 내용을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청 기업지원과(☎280-4732)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성기자

전북 공무원교육원, '새정부 국정과제 전북현안 이해' 특강

전북도 공무원교육원(원장 양심묵)에서는 27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 단장이었던 김성주 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을 초빙해 '새정부 국정과제와 전북현안의 이해'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에서 김성주 단장은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는 국민의 열망이 담긴 촛불정부"라며 "국민이 주인인 정부로써 앞으로 5년 동안 국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했고, 그 결과 100대 국정과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약 중 지역공약으로써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은 새만금사업이 유일하며 이는 대통령이 새만금 사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의 이행으로 전북 도민의 새만금에 대한 높은 기대와 열망에 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심묵 원장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전북 몫 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국정계획에 참여한 전문가를 초빙해 전북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대응전략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공무원들의 국정 이해도를 높이고, 도정 핵심과제의 효율적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10여개 과정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특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진성기자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해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전북 남원시 갈치동산 58-2
2. 분묘기수: 2기
3. 개장사유: 재산권행사(태양광사업)
4. 개장방법
   유연분묘: 연고자와 합의이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개장신고 후 개장
5. 개장 후 장소: 전북 남원시 솔터길 40-36(남원승화당)
6.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안치기간: 10년
8. 신고처: 장관영(Tel. 010-3680-5147, 010-5330-6258)
9. 기타: 동 지번일대에 추가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10. 신고방법: 분묘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호적, 제적, 족보 등)을 구비해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26일

공고인: 장 관 영